

# 고학년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감사성향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전 원 희\* · 이 기 령\*\*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행복은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됨에 따라 많은 학문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Compton, 2005). 행복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주관적 안녕감이나 심리적 안녕감으로 표현되며, 보편적으로 긍정적 정서나 즐거움의 정도, 부정적 정서의 부재, 그리고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Demir, Jaafar, Bilyk, & Ariff, 2012).

행복한 사람은 활동적, 사교적, 창의적인 성향을 보이며,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행복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면 학업이나 대인관계에서 보다 성공적일 수 있고, 졸업 후 직장에서도 더 많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Hoggard, 2005; Lyubomirsky, King, & Diener, 2005). 특히 행복은 보건의료인에게 중요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행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경향이 많음을 감안할 때(Hoggard, 2005; Lyubomirsky et al., 2005), 미래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간호대학생들이 행복한 대학생활을 이

루어 나가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은 일반대학생들에 비해 행복감이 낮고(Jo & Park, 2011; Jun, Cha, & Lee, 2015), 간호학과 교육과정은 이론수업과 임상실습이 병행되기 때문에 간호학과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는 매우 높고, 분노나 우울감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Reeve, Shumakera, Yearwood, Crowell, & Riley, 2013). 특히, 임상실습을 시작하는 고학년 간호대학생들이 이러한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하게 될 때 대상자 간호에서 위대한 행동을 유발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간호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MacNeil et al., 2010). 또한, 신규간호사 이직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의료기관의 인력 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Han, Sohn, Park, & Kang, 2010),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행복이 제시하고 있다(Nam, & Kwon, 2013). 따라서 미래의 간호사가 될 고학년 간호대학생이 행복한 삶을 두루 생각하고 행복의 가치를 우선시 하는 것은 자신의 심리, 사회적 건강과 더불어 졸업 이후 폭넓은 전문가적 소양을 갖춘 간호사로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하다(Jo, 2011). 따라서 간호 교육현장은 고학년

\*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 인천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교신저자 E-mail: ew10ew@hanmail.net)

• Received: 18 July 2016 • Revised: 13 December 2016 • Accepted: 25 December 2016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Lee, Kee-Lyong

College of Nursing, Incheon Catholic University

12, Haesongro, Yeonsugu, Incheon, 406-840, Korea.

Tel: 82-32-830-7096 Fax: 82-32-830-7059 E-mail: ew10ew@hanmail.net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차원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증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행복은 개인이 자신의 삶의 경험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성별, 종교, 경제적 상태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인만으로 행복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최근 행복관련 변인으로 감정, 생각, 행동특성과 같은 개인의 내적, 심리적 요인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Layous, Nelson, & Lyubomirsky, 2012). 이러한 점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에 대한 신념, 본질, 목적에 대한 견해를 총괄하는 간호전문직관은 간호대학생들이 힘든 교육과정을 극복해나가기에 동기 부여함으로써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간호전문직관은 간호, 간호활동, 간호 전문성에 대한 체계화된 직업 의식적 견해로서 인본주의적, 이타주의적 가치체계에 기반하고 있다(Yeun, Kwon, & Ann, 2005). 선행연구에서 확고한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한 간호대학생들은 보다 만족스럽고 행복한 대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언급하였고, 전문직 특성을 이유로 간호학을 선택한 학생들이 취업용이성으로 인해 간호학을 선택한 학생들에 비해 주관적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Jo & Park, 2011). 또한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의 직무나 조직몰입, 이직의도와 관련성이 있어(Han et al., 2010), 간호전문직관을 확고히 확립하는 것은 취업을 앞둔 고학년 간호대학생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부분이며, 나아가 이들의 행복 증진을 위한 중재적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고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전문직관과 행복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는 없었다.

한편, 감사성향은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개인의 강점으로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Lyubomirsky 등(2005)은 감사성향과 같이 개인의 의지나 노력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의도적인 활동은 행복의 영향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감사성향은 불안, 우울 및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켜,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Jo & Park 2011; McCullough, Emmons, & Tsang, 2002; Watkins, Woodward, Stone, & Kolts, 2003).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통해 감사성향과 행복 간의 유의미한

관련성을 짐작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감사성향과 행복 간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Jo & Park, 2011; Jun et al., 2015)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행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간호학에서도 행복을 다루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간호대학생의 행복에 대한 인식 연구(Jo, 2011), 행복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이론적 연구(Jo, 2016; Jo & Park, 2011; Jun et al., 2015),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구체적인 중재연구(Lee, 2015)들이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간호 교육현장에서 고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전문직관, 감사성향과 행복 간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고학년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같은 신념이나 가치관과 행동적 개념을 포함하는 감사성향을 행복에 접근하는 것은 이들의 행복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학년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감사성향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이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감사성향, 행복 정도 및 관계를 확인하고, 간호전문직관과 감사성향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감사성향과 행복 정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행복의 차이를 확인한다.
-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감사성향과 행복의 관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감사성향,

행복 정도 및 관계를 확인하고, 간호전문직관과 감사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B시와 D시에 소재한 2개 대학교의 3, 4학년 간호대학생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며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205명을 편의 표집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에서 유의수준 .05, 중간 효과크기인 .15, 검정력 95%, 예측요인을 12개 기준으로 하였을 때 최소 184명이 산출되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21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하였고, 이중 미응답 및 불성실한 자료 5부를 제외한 205(97%)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 3. 연구 도구

### 1)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Yeun 등(2005)이 한국 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5개의 하위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직 자아개념, 사회적 인식, 간호의 전문성, 간호실무 역할과 간호의 독자성을 포함한 총 29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확고한 것으로 해석한다. Yeun 등(2005)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92였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90이었다.

### 2) 감사성향

감사성향은 McCullough 등 (2002)이 개발하고, Kwon, Kim과 Lee (2006)가 한국어로 변안한 한국판 감사 질문지(Gratitude Questionnaire-6(GQ-6))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사의 경험과 표현을 평가하게 되는 총 6문항의 7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사성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Kwon 등(2006)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85였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

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87이었다.

### 3) 행복

행복은 Hills와 Argyle (2002)가 개발하고 Choi와 Lee (2004)가 한국어로 번역한 옥스퍼드 행복 질문지(Oxford Happiness Questionnaire(OHQ))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29문항의 6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Choi와 Lee (200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91였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93이었다.

## 4. 자료 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자료 수집은 해당기관의 간호학과장에게 자료 수집에 대한 허락을 받은 후 2015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1월 30일까지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해당 대학의 학생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였고, 이후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연구보조원이 서면 동의서를 배부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구조화된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설문지는 대상자가 직접 작성한 후, 일괄 수거하였다. 연구자는 자료 수집 전 대상자의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 연구 목적, 내용 및 취지에 대해 설명 후 익명과 비밀보장을 약속하였다. 참여자의 설문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없이 언제라도 거부 및 중단할 수 있고, 연구가 종료된 후 설문지는 모두 폐기할 것임을 알려주었다. 또한 연구 대상자의 정보 보호를 위해 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설문지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서면 동의서와 설문지를 별도로 배포 및 수거하였다.

##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감사성향과 행복 정도는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행복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고, Scheffé test 이용

- 하여 사후검정 하였다.
-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감사성향과 행복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 간호대학생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114명(55.6%)이었다. 전공 만족도는 만족 127명(62.0%), 보통 67명(32.6%), 불만족 11명(5.4%)이었다. 지각된 신체건강상태는 좋음 158명(77.1%), 보통 40명(19.5%), 나쁨 7명(3.4%)이었다. 입학 동기는 적성이 91명(44.4%)으로 가장 많았다(Table 1).

### III.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는 여학생 184명(89.8%)과 남학생 21명(10.2%)이었다. 학년은 3학년 101명(49.3%), 4학년 104명(50.7%)이었고, 종교가 없는 대상자가

#### 2. 간호전문직관, 감사성향과 행복 정도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에 평균평점 3.85점이었고 하위요인별 점수는 전문직 자아개념 4.01점, 사회적 인식 3.57점, 간호의 전문성 4.11점, 간호실무 역할 3.94점, 간호의 독자성 3.58점이었다. 감사성향은 7점 만점에 평균평점 5.55점이었고 행복은 6점 만점에 평균평점 4.17점이었다(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0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Sex	Female	184 (89.8)
	Male	21 (10.2)
Grade	3	101 (49.3)
	4	104 (50.7)
Religion	Yes	91 (44.4)
	No	114 (55.6)
Satisfaction with nursing	Satisfied	127 (62.0)
	Average	67 (32.6)
	Dissatisfied	11 ( 5.4)
Perceived physical health status	Good	158 (77.1)
	Average	40 (19.5)
	Poor	7 ( 3.4)
Reason for entering nursing school	Entrance exam score	16 ( 7.8)
	Guaranteed employment	74 (36.1)
	Others' recommendation	24 (11.7)
	Aptitude	91 (44.4)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N=205)

Variables	Range	Mean±SD	Min	Max
Nursing professional values	1-5	3.85±0.44	1.97	5.00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	1-5	4.01±0.51	1.78	5.00
Social awareness	1-5	3.57±0.60	1.63	5.00
Professionalism of nursing	1-5	4.11±0.53	1.80	5.00
Roles of nursing service	1-5	3.94±0.60	1.75	5.00
Originality of nursing	1-5	3.58±0.90	1.00	5.00
Grateful disposition	1-7	5.55±0.91	2.67	7.00
Happiness	1-6	4.17±0.57	1.93	5.28

###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행복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행복은 전공만족도( $F=9.435, p<.001$ ), 지각된 신체건강상태( $F=18.568, p<.001$ )와 입학 동기( $F=4.631, p=.004$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 전공만족도를 '만족'으로 응답한 경우 '보통'과 '불만족'보다 행복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지각된 신체건강상태에서는 ' 좋음'으로 응답한 대상자는 '보통'과 '나쁨'보다, '보통'으로 응답한 대상자는 '나쁨'으로 응답한 경우보다 행복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입학동기에서는 '적성'으로 응답한 대상자가 '취업 용이성'으로 응답한 대상자에 비해 행복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Table 3).

### 4. 간호전문직관, 감사성향과 행복 간의 관계

간호전문직관은 행복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r=.453, p<.001$ ). 하위요인별로는 간호의 특성( $r=.084, p=.229$ )을 제외한 모든 하위영역 즉,

전문직 자아개념( $r=.382, p<.001$ ), 사회적 인식( $r=.404, p<.001$ ), 간호의 전문성( $r=.365, p<.001$ ), 간호실무 역할( $r=.369, p<.001$ )은 행복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감사성향은 행복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r=.597, p<.001$ )(Table 4).

Table 4.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205)	
Variable	Happiness <i>r</i> ( <i>p</i> )
Nursing professional values	.453(<.001)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	.382(<.001)
Social awareness	.404(<.001)
Professionalism of nursing	.365(<.001)
Roles of nursing service	.369(<.001)
Originality of nursing	.084(.229)
Grateful disposition	.597(<.001)

### 5.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

Table 3. Happines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05)

Characteristics	Happiness		
	Mean±SD	t/F( <i>p</i> )	Scheffe's test
Sex			
Female	4.15±0.57	-1.632	
Male	4.36±0.60	(.104)	
Grade			
3	4.15±0.59	-0.574	
4	4.19±0.55	(.567)	
Religion			
Yes	4.21±0.60	0.967	
No	4.14±0.55	(.335)	
Satisfaction with nursing			
Satisfied <sup>a</sup>	4.30±0.51	9.435	a>b,c
Average <sup>b</sup>	3.98±0.60	(<.001)	
Dissatisfied <sup>c</sup>	3.85±0.65		
Perceived physical health status			
Good <sup>a</sup>	4.28±0.48	18.568	a>b>c
Average <sup>b</sup>	3.93±0.68	(<.001)	
Poor <sup>c</sup>	3.23±0.46		
Reason for entering nursing school			
Entrance exam score	3.99±0.42	4.631	a(b)
Guaranteed employment <sup>a</sup>	4.02±0.62	(.004)	
Others' recommendation	4.18±0.58		
Aptitude <sup>b</sup>	4.32±0.51		

해서, 상관관계 분석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던 간호전문직관의 하위요인들과 감사성향, 그리고 일반적 특성 중 유의한 차이를 보인 전공만족도, 지각된 신체건강상태와 입학동기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일반적 특성인 전공만족도, 지각된 신체건강상태와 입학 동기는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들 사이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한 결과, Dubin-Watson 통계량은 2.170이었고 공차한계(tolerance)는 0.730-0.923으로 0.1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는 1.084-1.370으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대상자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는 감사성향( $\beta=.479, p<.001$ ), 사회적 인식( $\beta=.190, p=.002$ ), 지각된 신체건강상태( $\beta=.162, p=.003$ ), 간호전문성( $\beta=.134, p=.027$ )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은 대상자의 행복 전체 변량의 45.5%를 설명하였다(Table 5).

#### IV. 논 의

본 연구는 고학년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감사성향, 행복 정도 및 관계를 탐색하고, 간호전문직관과 감사성향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고학년 간호대학생의 행복 증진을 위한 중재방안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고학년 간호대학생의 행복 수준은 6점 만점에 4.17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한국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Jo (2016)의 연구에서 4.22 점과, 캐나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Flynn과 Macleod (2015)의 4.41 점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차

이는 선행연구의 대상자는 1 학년부터 4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3, 4 학년의 고학년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을 학년별로 비교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Lee, Chung과 Kim (2015)에서는 1 학년이 2, 3, 4 학년에 비해 높았고, 간호대학생의 행복 수준은 1 학년이 다른 학년들에 비해 높았다(Jo, 2016). 이는 2 학년 때부터 본격적인 전공과정이 시작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과 취업에 대한 부담감이 증가되며, 이러한 부담감이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관적 행복감이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Jun 등(2015)의 연구결과와 상반된 결과로 후속연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임상실습에서 다양한 대상자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고학년 간호대학생들의 행복은 대상자 간호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행복은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증진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학년의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행복수준은 일반적 특성 중 전공만족도, 지각된 신체건강상태와 입학동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공에 대해 '만족'으로 응답한 대상자는 '보통'이나 '불만족'으로 응답한 경우보다 행복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공만족도가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보고한 Nam과 Lee (2014)의 연구와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 전공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은 학업에 열중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대학생 시기에 사회적 성취나 취업으로 연결되는 학업 성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인정과 관련된 지표들은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공만족도에 따라 다른 행복 수준을 보인 본 연구결과를 이해할 수 있다

Table 5. Predictors of Happiness

(N=205)

Variable	$\beta$	t	p	R <sup>2</sup>	Adjusted R <sup>2</sup>	F(p)
Grateful disposition	.479	8.704	<.001	.465	.455	43.532 (<.001)
Social awareness	.190	3.137	.002			
Perceived physical health status*	.162	3.004	.003			
Professionalism of nursing	.134	2.229	.027			

\* Dummy variables (Good=1, Average=0, Poor=0)

(Flynn & Macleod, 2015; Jo & Park, 2011).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학업 성취 수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러한 연계성을 논의하는데 제한이 있으므로 추후 이들 변인 간의 관련성을 명확히 규명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신체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지각한 대상자는 보통이나 나쁜 것으로 지각한 대상자에 비해 행복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외 많은 선행연구에서 행복이 지각된 신체건강상태, 건강증진행위나 BMI 등과 같은 건강관련 변수들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Jo & Park, 2011; Mahon, Yarcheski, & Yarcheski, 2005; Miret et al., 2014). 즉, 간호대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보다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입학동기의 경우, 적성에 따라 간호학을 선택한 학생들은 취업용이성을 이유로 입학한 학생들에 비해 행복 수준이 높았다. Jo와 Park(2011)은 간호학에 흥미가 있어 입학한 학생들은 취업용이성이나 다른 사람의 권유 등의 이유로 입학한 학생에 비해 행복 점수가 높다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적성이 고려되지 않은 전공 선택은 대학 과정 동안 학업에 동기부여하기가 어렵고 자신의 장래나 진로에 대해 양가감정이 심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Cook, Gilmer, & Bess, 2003).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 부모의 의사나 권유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됨에 따라 자신의 적성과 상관없이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Lim, 2011; Nam & Kwon, 2013). 따라서 학생들이 행복한 대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시기에 다양한 전공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찾고,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학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간호교육자는 성적, 취업, 주변의 권유에 맞추어 전공 선택을 한 경우 적성 및 진로 지도 프로그램을 통한 전공에 대한 관심 및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저학년인 신입생 시절부터 적극적인 상담과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성별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행복의 수준은 차이가 없었다. 간호대학생의 행복 요인을 조사

한 선행연구 결과는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행복 수준은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Jo & Park, 2011; Jun et al., 2015; Nam & Lee, 2014)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행복의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결과(Jo, 2016)로 상반된 결과들이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학생 비율이 85~97%로 여학생이 대다수를 차지한 점을 감안하여 추후연구에서는 성별 비율을 고려한 반복 연구를 통해 성별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행복에 차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간호대학생의 행복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감사성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성향이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보고한 선행연구(Jo & Park, 2011; Jun et al., 2015)와 일관된 결과였고,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한 Kwon 등(2006)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삶에 대해 감사하는 태도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발견하고 세상을 보다 호의적으로 바라보도록 함으로써 자신과 주변상황에 대한 만족감을 증진시킬 수 있고 나아가 개인의 행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Alavi, 2007; Watkins et al., 2003).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행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감사성향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겠다. 또한 감사성향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향상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평소 감사 목록을 작성하거나 감사 일기를 쓰는 습관을 길러 감사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겠다(Watkins et al., 2003; Wood, Froh, & Geraghty, 2010).

간호직문직관의 하위유형 중 사회적 인식과 간호의 전문성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간호대학생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간호나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증진시키고 간호를 고유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전문 직업으로 인식할 수 있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개인의 문화인 서구사회와 달리 집단주의 문화인 한국 사회에서는 전문직으로써의 간호사나 간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간호대학생들의 직업정체감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나아가 힘든 교육과정을 헤쳐 나가는데 의미부여하기 어려워 행복감을 덜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전문 직업으로서 간호사의 사회적 인식을 증진시키는 것은 간호교육자와 실무자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으며, 대중매체를 통해 다양한 간호 영역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간호를 수행하는 간호사들의 활동을 부각시키고 간호 전문성이 드러나는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직으로서 간호의 특성을 명백히 이해하고 이러한 특성들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지각된 신체건강상태가 있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Jo & Park, 2011)에서 긍정적으로 지각된 신체건강상태가 주관적 행복감 증진에 영향을 미쳤던 결과와 일치하였고, 필란드, 폴란드, 그리고 스페인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에서 성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건강상태를 제시한 결과(Miret et al., 2014)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Yang과 Moon (2013)은 미래 보건의료 제공자인 간호대학생들이 자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건강증진행위를 실천하지 않는 것으로 언급하였다. 이러한 견지에서, 간호교육은 간호대학생들이 자신의 건강문제를 확인하고 건강증진행위에 대한 동기부여 할 수 있는 '건강증진캠페인'과 같은 행사를 개최할 필요가 있으며 건강증진행위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자기조절훈련에 초점을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개 대학의 고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또한 신체건강상태의 경우, 자가 보고식 단일문장으로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추후 생리적 지표 등을 사용하여 보다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고학년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감사성향과 행복 정도를 파악하고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실시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대상자들의 행복 수준은 중간 이상이었으며 일

반적 특성 중 전공만족도, 지각된 신체건강상태와 입학 동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감사성향과 간호전문직관 하위유형 중 사회적 인식과 간호의 전문성, 그리고 지각된 신체건강상태였고 이들 변인의 행복에 대한 설명력은 45.5%이었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의 감사성향을 증진시키는 활동과 간호전문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증진시키고 간호의 전문성에 대한 가치관을 명확하게 확립하는 것, 그리고 건강증진행위를 통해 신체건강상태를 향상시키는 것은 간호대학생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고학년 간호대학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과 졸업 후 직장에서의 전문직 역량 발휘에 중요한 간호전문직관과 행복의 관련성을 조사한 첫 번째 연구로서 이들의 행복을 이해하고 증대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연구 대상 및 지역을 확대한 반복연구를 시행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감사성향, 간호전문직관, 지각된 신체건강상태가 행복의 관련요인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한 중재 전략을 개발하여 간호대학생의 행복 수준 향상의 효과를 조사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 References

- Alavi, H. R. (2007). Correlatives of happiness in the university students of Iran.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46, 480-499.  
<http://dx.doi.org/10.1007/s10943-007-9115-4>
- Choi, Y. W. & Lee, S. J. (2004). The influence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emotional awareness on mental health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9, 887-901.
- Compton, W. C. (2005). *An introduction to positive psychology*. Belmont, California: Thomson Wadsworth.
- Cook, T. H., Gilmer, M. J., & Bess, C. J.

- (2003). Beginning students' definitions of nursing: an inductive framework of professional identify. *Th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42*(7), 311-317.
- Demir, M., Jaafar, J., Bilyk, N., & Ariff, M. R. M. (2012). Social skills, friendship and happiness: across-cultural investigation.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52*, 379-385. <http://dx.doi.org/10.1080/00224545.2011.591451>
- Flynn, D. & Macleod, S. (2015). Determinants of happiness in undergraduate university students. *College Student Journal, 49*(3), 452-460.
- Han, Y. H., Sohn, I. S., Park, K. O., & Kang, K. H. (2010). The relationships between professionalism, job involvement,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among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16*(2), 17-31.
- Hills, P. & Argyle, M. (2002). The Oxford Happiness Questionnaire: a compact scale for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well-b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 1073-1082. [http://dx.doi.org/10.1016/S0191-8869\(01\)00213-6](http://dx.doi.org/10.1016/S0191-8869(01)00213-6)
- Hoggard, L. (2005). *How to be happy*. London: B.B.C. Books.
- Jo, G. Y. & Park, H. S. (2011). Predictors of subjective happiness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2*, 160-169.
- Jo, M. J. (2016). The factors related to happiness among nursing student. *The Journal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2*(2), 182-190. <http://dx.doi.org/10.5977/jkasne.2016.22.2.182>
- Jo, K. H. (2011). Perception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toward happiness: a Q-methodological approach.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2), 178-189. <http://dx.doi.org/10.5977/JKASNE.2011.17.2.178>
- Jun, W. H., Cha, K. S., & Lee, K. L. (2015). Factors affecting subjective well-being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1*(2), 276-284. <http://dx.doi.org/10.5977/jkasne.2015.21.2.276>
- Kwon, S. J., Kim, K. H., & Lee, H. S. (2006).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gratitude questionnaire.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1*, 177-190.
- Layous, K., Nelson, S. K., & Lyubomirsky, S. (2012). What is the optimal way to deliver a positive activity intervention? the case of writing about one's best possible selve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4*, 635-654. <http://dx.doi.org/10.1007/s10902-012-9346-2>
- Lee, S. H., Chung, B. Y., & Kim, S. H. (2015). Influence on subjective happiness of university student.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9*(1), 115-126. <http://dx.doi.org/10.5932/JKPHN.2015.29.1.115>
- Lee, E. S. (2015). Effect of a happiness choice program based on reality therapy on subjective well-being and interpersonal relations in nursing student.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9*(3), 503-514. <http://dx.doi.org/10.5932/JKPHN.2015.29.3.503>
- Lim, Y. S. (2011). Learning styles of the interior design students and their attitudes and aptitudes toward major. *Journal of Society of Korea Design Trend, 32*, 217-226. <http://dx.doi.org/10.21326/ksdt.2011..32.019>
- Lyubomirsky, S., King, L., & Diener, E. (2005).

- The benefits of frequent positive affect: does happiness lead to success?. *Psychological Bulletin*, 131, 803-855. <http://dx.doi.org/10.1037/0033-2909.131.6.803>
- MacNeil, G., Kosberg, J., Durkin, D., Dooley, W. K., DeCoster, J., & Williamson, G. (2010). Caregiver mental health and potentially harmful caregiving behavior: the central role of caregiver anger. *The Gerontologist*, 5, 76 - 86. <http://dx.doi.org/10.1093/geront/gnp099>
- Mahon, N. E., Yarcheski, A., & Yarcheski, T. J. (2005). Happiness as related to gender and health in early adolescents. *Clinical Nursing Research*, 14(2), 175-190. <http://dx.doi.org/10.1177/1054773804271936>
- McCullough, M. E., Emmons, R. A., & Tsang, J. (2002). The grateful disposition: a conceptual and empirical topograph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112-127. <http://dx.doi.org/10.1037/0022-3514.82.1.112>
- Miret, M., Caballero, F. F., Chatterji, S., Olaya, B., Tobiasz-Adamczyk, B., Koskinen, S., Leonardi, M., Haroc, J. M., & Ayuso-Mateos, J. L. (2014). Health and happiness: cross-sectional household surveys in Finland, Poland and Spain. *Bull World Health Organ*, 92, 716 - 725. <http://dx.doi.org/10.2471/BLT.13.129254>
- Nam, M. H. & Kwon, Y. C. (2013). Factors influencing happiness index of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9(3), 329-339. <http://dx.doi.org/10.11111/jkana.2013.19.3.329>
- Nam, M. H. & Lee, M. R. (2014). Factors influencing subjective happiness index of health behavior, self 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by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10), 363-374. <http://dx.doi.org/10.14400/JDC.2014.12.10.363>
- Reeve, K. L., Shumakera, C. J., Yearwood, E. L., Crowell, N. A., & Riley, J. B. (2013). Perceived stress and social support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educational experiences. *Nurse Education Today*, 33, 419-424. <http://dx.doi.org/10.1016/j.nedt.2012.11.009>
- Watkins, P. C., Woodward, K., Stone, T., & Kolts, R. L. (2003). Gratitude and happiness: development of a measure of gratitude, and relationships with subjective well-being.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1, 431-451. <http://dx.doi.org/10.2224/sbp.2003.31.5.431>
- Wood, A. M., Froh, J. J., & Geraghty, A. W. (2010). Gratitude and well-being: a review and theoretical integrat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30, 890-905. <http://dx.doi.org/doi:10.1016/j.cpr.2010.03.005>
- Yang, N. Y. & Moon, S. Y. (2013). The impact of health status,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social problem ability on colleg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1), 33-42.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1.33>
- Yeun, E. J., Kwon, Y. M., & Ahn, O. H. (2005).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6), 1091 - 1100.

## The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Gratitude Disposition on the Happiness in Senior Nursing Students

**Jun, Won-Hee**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eimyung University)

**Lee, Kee-Lyong**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Incheon Catholic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aimed to provide the baseline data for improving happiness under the influences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gratitude disposition in senior nursing students. **Method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05 senior students in B and D metropolitan cities by structured questionnaires between November 1 and November 30, 2015.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ith SPSS/WIN 18.0. **Results:** The mean score for happiness was above-average. Happiness significantly differed by satisfaction with nursing, perceived physical health status, and reason for entering nursing school.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happiness included gratitude disposition, social awareness and professionalism of nursing among subscales of nursing professional value, and perceived physical health status. The regression model explained 45.5% of happiness. **Conclusion:** To improve the happiness of senior nursing students, nursing educators need to develop intervention programs to increase gratitude disposition and perceived physical health status, as well as specific educational programs that strengthen social awareness and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Key words :** Professionalism, Gratitude, Happiness, Nursing student